

Expert Workshop

09/2014

For the life on earth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독일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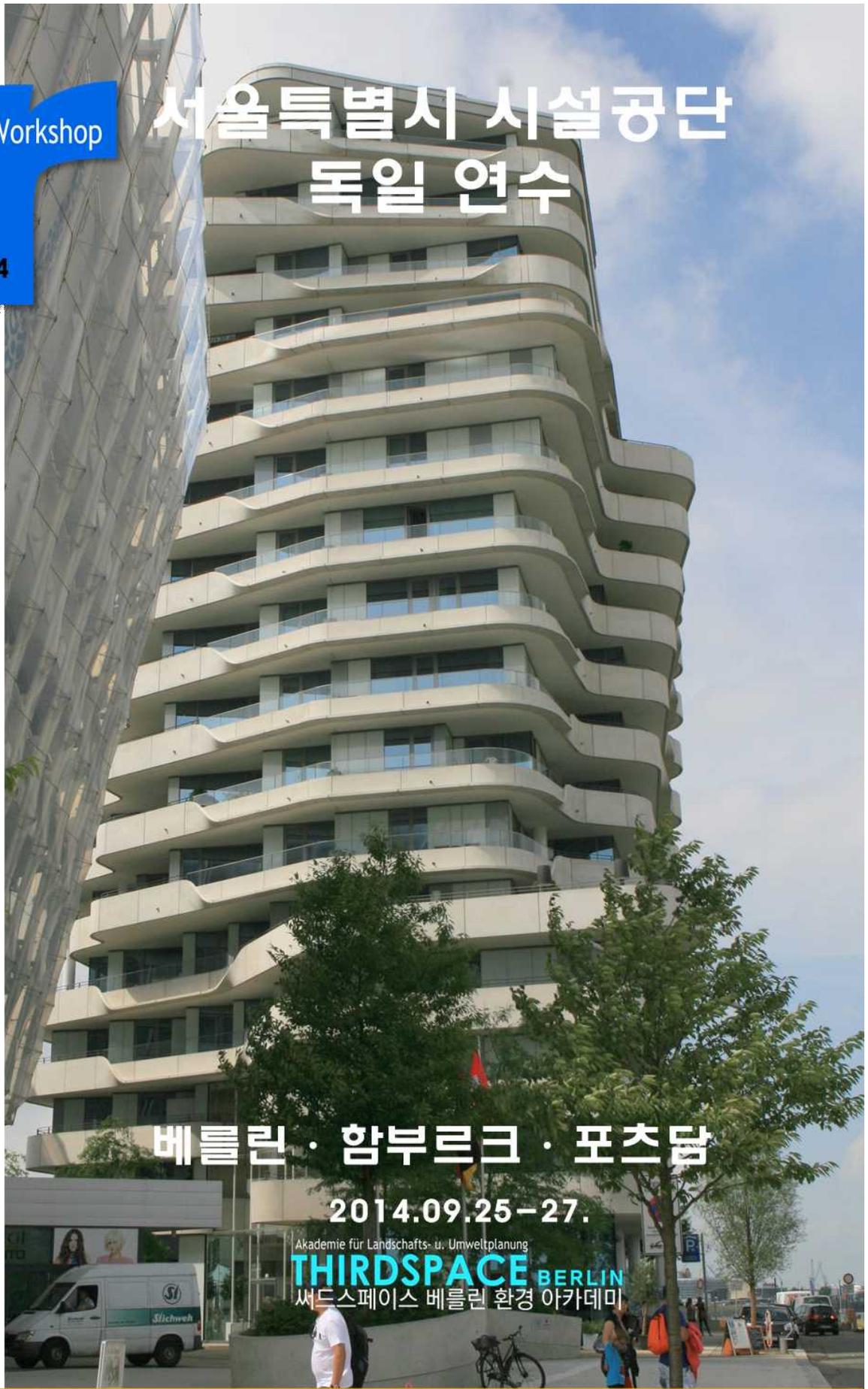
베를린 · 함부르크 · 포츠담

2014.09.25-27.

Akademie für Landschafts- u. Umweltplanung

THIRDSPACE BERLIN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014 독일 연수 일정

1. 참가 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poration
 133-739,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540
 Tel:02)2290-6114
www.sisul.or.kr

2. 참가자 명단:

	성명 (국문)	성별	성명 (영문)	부서/담당	이메일	핸드폰번호
1	이진희	Mrs(여)	Lee Jin-Hee	총무처/조경 (기술계약심사)	romance0429@hotmail.com	+82-10-9240-6298
2	윤장미	Mrs(여)	Yun Jang-Mi	미래전략실/사무(마케팅)	roseyun0214@gmail.com	+82-10-5325-5651
3	조용대	Mr.(남)	Jo Yong-Dae	태양광발전사업인수단/전기	ydjoe@hanmail.net	+82-10-4200-1382
4	이정재	Mr.(남)	Lee Jeong-Jae	공사감독처/조경(도심지조경공사 감독)	jj-zzz@hanmail.net	+82-10-6247-0500
5	박병오	Mr.(남)	Park Pyoung-Oh	상가관리처/사무(노동조합)	park4815@nate.com	+82-10-8892-4815
6	김현민	Mr.(남)	Kim Hyen-Min	미래전략실/사무(전략기획)	mini8383@hanmail.net	+82-10-4011-3059

3. 독일 연수 일정 개요:

날짜	도시	답사 기관 개요
9월 25일 (목)	베를린	그린베를린 관리공단/템펠호프자유공원/2017 국제정원박람회장
9월 26일 (금)	함부르크	하펜시티/겐제마르크트
9월 27일 (토)	포츠담	시민공원/우정섬공원/동물원

4. 세부일정

■ 9월 25일 (목) 베를린				
1) 내용	2) 시간	3) 장소	4) 주소	5) 비고
가이드 미팅 일정 브리핑	08:30 09:00	호텔 로비		
이동	09:00 09:30			
기관 방문	09:30 11:00	그린베를린 공원관리공단	Green Berlin mbH Columbiadamm 10, 12101 Berlin	면담 : Christoph Schmidt, Rolf Wieser, Mathias Kolle Tel.: +49 30 700 906 - 63
현장답사	11:00 12:00	템펠호퍼펠트 자유공원 탐방	Tempelhofer Freiheit Columbiadamm 10, 12101 Berlin	구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 구 공항건물의 상업이용
중식	12:00 13:00	산마리노 San Marino	Savignyplaty 12 49-30 3136068	이태리 퓨전
기관방문	14:00 15:00	연방환경청 베를린 지사 (최첨단의 친환경 건물)	UBA House 2019 Schichauweg 58, 12307 Berlin,	면담 및 안내 Tilo Herzig, 연방환경청 담당자 (0152 26722224)
현장답사	16:00 18:00	베를린 세계정원 2017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장소 서울정원 소재지	Garden of the World Eisenacher Straße 99, Berlin	세계정원 운영관리 담당자 면담 및 공원 가이드: Frau Kathrin Buhe (Herr Lauschke) 030 700906 606
석식	18:00 19:00	뢰벤브로이 Löwenbräu	Leipziger Straße 65 10117 Berlin	독일정통호프집
■ 9월 26일 (금) 함부르크				
가이드 미팅 일정 브리핑	07:30 08:00	호텔 로비		
이동	08:00 11:00	함부르크		약 300 km

현장답사	11:00 13:00	겐제마르크트 Gänsemarkt	Gänsemarktpassage Jungfernstieg 30 20354 Hamburg	
중식	겐제마르크트 주변에 방문할 상가들이 많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식은 상가 내에서 간단히 스낵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13:00 14:00	하펜시티		
현장답사	14:00 16:00	하펜시티 가이드 프로그램 “녹색 산책” ¹⁾	NachhaltigkeitsPavillon OSAKA9 Osakaallee 9, 20457Hamburg	면담 및 투어: Thorsten Gödtel Tel+49-(0)40-3747 26-31
티타임	16:00 17:00	하펜 시티 내의 멋진 카페가 많으니 상황에 따라서		
답사	17:00 18:30	유람선-하펜시티 및 함부르크 항구 일주	Maritime Circle Line	14.50 유로/인 ²⁾
석식	18:35 19:30	한식당 만남	Man-Nam Karolinenstraße 1 20357 Hamburg	
이동	19:30 22:00	베를린으로 이동		약 300 km
<p>■ 9월 27일 (토) 포츠담/베를린</p>				
가이드 미팅 일정 브리핑	08:30 09:00	호텔 로비	미정	
이동	09:00 10:00	포츠담으로 이동		약 40 km
답사	10:00 11:00	포츠담 시민공원 Volkspark Potsdam	Georg-Hermann-Allee 101, 14469 Potsdam	주말이므로 담당자 면담 불가
답사	11:15 12:00	네덜란드 마을	Mittelstr. 14467 Potsdam	
중식	12:00 13:00	미정	네덜란드 마을 내	
답사	13:15 15:00	우정섬 공원 Freundschaftsinsel	Lange Brücke, 14467 Potsdam	주말이므로 담당자 면담 불가
이동	15:00 16:00	베를린으로 동물원으로 이동		약 40 km
답사 및 자유 시간	16:00 ~	베를린 동물원 Zoologischer Garten Berlin	Hardenbergplatz 8, 10787 Berlin	

1) 10 인 그룹 이상만 가이드를 해 주지만 일단 가능한지 문의 메일을 넣어두었습니다.

2) 90분 투어이며 티켓은 일인당 14.50 유로입니다. (그룹 할인은 10명 이상부터)



기관명 그린베를린 게엠베하 Grün Berlin GmbH
 (베를린 녹색공단)
도시 베를린
연방주 베를린
주소/ Columbiadamm 10, Turm 7, 12101 Berlin
연락처 (구 공항건물)
 Tel.: +4930 700906-0
 E-Mail: info(at)gruen-berlin.de

개요

2. 총 2500 개소의 공원, 녹지, 도시정원, 광장 등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베를린 시(주)에서 설립. (설립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일을 전후한 것으로 추정됨.)
3. 자연공원, 세계정원, 브리츠 공원 등 특별한 성격을 가진 대규모의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일종의 공원관리 사단법인. 일반적인 수목이나 시설관리의 차원을 떠나서 공원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도 새로운 공원조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단체 역할도 겸하고 있다.
4. 현재 약 50명의 정직원이 있으며 5개소의 지부를 두고 있다.
 - 중앙부서 /Tempelhofer Park (Columbiadamm 10, Turm 7, 12101 Berlin)
 - 브리츠 공원 Britzer Garten (Buckower Damm 146, 12349 Berlin)
 - 세계정원 Gärten der Welt (Eisenacher Str. 99, 12685 Berlin)
 - 자연공원 쾨니히스플atz Natur-Park Südgelände (Prellerweg 47 - 49, 12157 Berlin)
 -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 Park auf dem Gleisdreieck (Möckernstraße 26, 10963 Berlin)



구 공항건물 (현 그린베를린 중앙부서 위치)



자연공원 쉐네베르거 쾨니히스플atz Natur-Park Schöneberger



브리츠 공원 Britzer Garten



세계의 정원들 Gärten der Welt

업무 범위

1. 프로젝트 개발
2.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3. 공원 매니지먼트
4. 마케팅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완성단계)

- 국제정원박람회 베를린 2017
- 글라이스 드라이에크 공원 2차
- 베를린 문화포럼 내 학살된 장애우를 위한 옥외 추모관 T4
- 템펠호퍼 자유 진행 중
- 팡케천 녹지축 남부구간
- 베를린 장벽 기념관
- 베를린 장벽산책루트
- 병목 (Bottleneck) 공원
- 모뉴멘텐플라츠
- 남북 녹지축
- 하펠강 자전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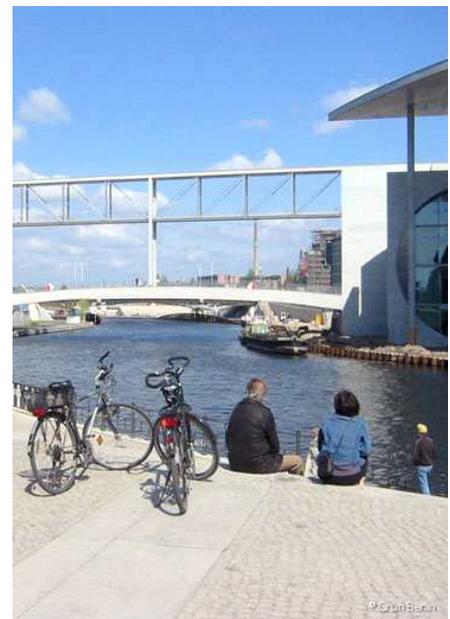
대표적인 프로젝트

(별도 홈페이지 운영)

- [Britzer Garten](#)
- [Gärten der Welt](#)
- [Natur-Park Südgelände](#)
- [Park am Gleisdreieck](#)
- [Volkspark Pankow](#)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
Park auf dem Gleisdreieck



베를린 장벽 산책루트
Berliner Mauerweg

Berlin Tempelhofer Freiheit

답사지 명칭 여가휴양공원시설 템펠호퍼 펠트
도시 베를린
연방주 베를린
유형 공공녹지 및 휴양공원
위치 베를린 남동부의 템펠호프구와 노이켈
 른구 사이에 위치
면적 (ha) 355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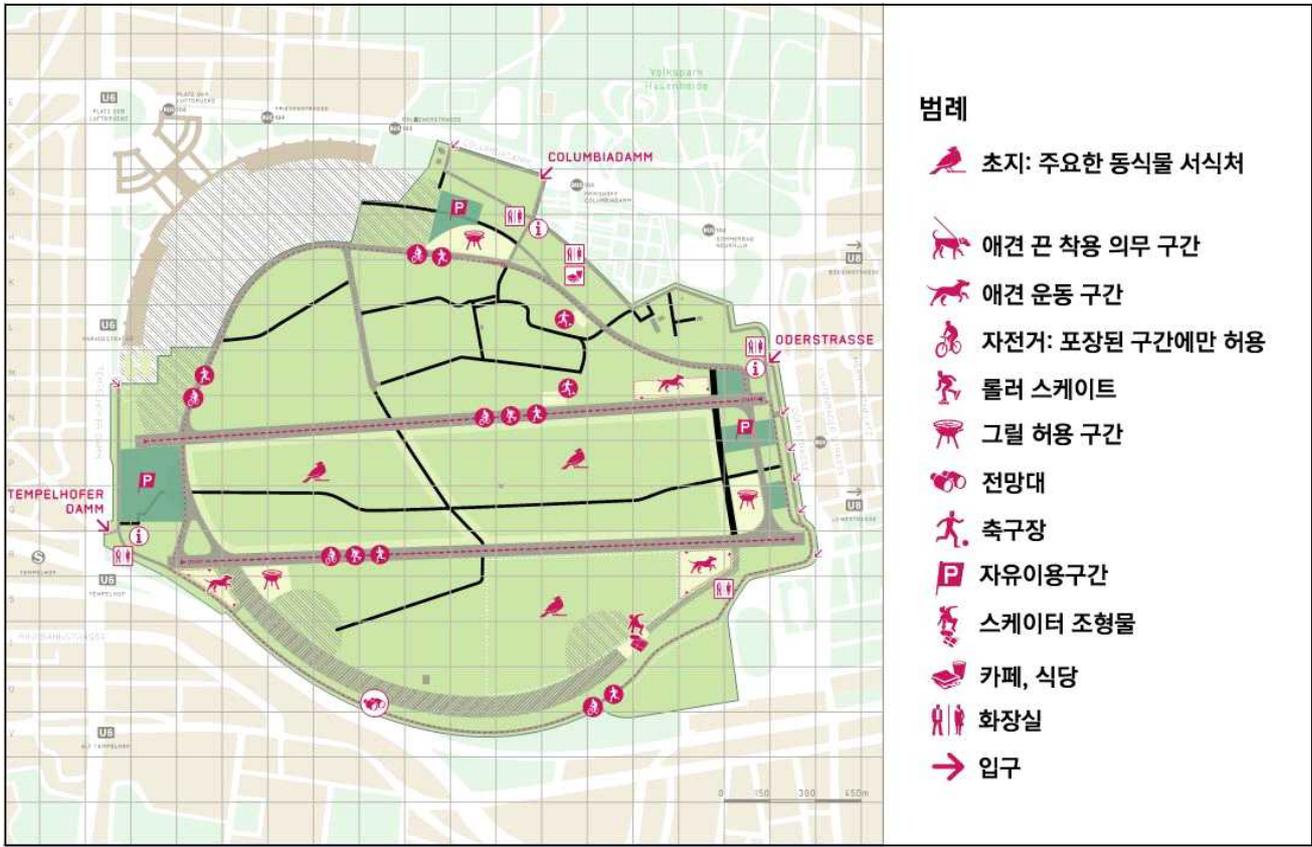
개요:

**템펠호프 공항/
 공원 형성** 1922-2008 템펠호프 공항으로 이용.
 2008년 신공항계획에 따라 공항폐쇄.
 2009년부터 템펠호프 펠트로 지정.

**템펠호프 개발
 계획 및
 주민투표** 2008년 공항 폐쇄 이후 템펠호프 펠
 트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짐.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전
 등의 계획수립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구 공항청사 건물과 이착륙로 보존이
 결정되고 이 축들을 기준으로 크게 공
 원부지와 주변 주거지들과 연계되는
 신주거지 계획이 수립됨.
 계획과정 동안 펠트는 임시적으로 시
 민들에게 개방되고 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공원용도로 사용.
 이후 템펠호프 펠트에 대한 시민이용
 도 및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2014년 5
 월 주민투표에 의해 도시개발계획 대
 신 향후 지속적인 공원용도로 결정됨.

**생태/
 이용현황** 이전 공항용도의 특성에 따라 마른초
 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됨.
 2008년 펠트 개방 이후 다양한 친환경
 경적 피오니어 프로젝트들이 진행됨.
 여가휴양공원의 성격을 띠며 다양한
 스포츠활동 및 피크닉 등이 허용됨.
 일시적인 대규모 이벤트와 환경관련
 국제행사들이 구 공항청사건물과 펠트
 에서 열림.







연방환경청 베를린 지부

House 2019

기관명 연방환경청 Umweltbundesamt 베를린
도시 오피스 마리엔펠데 베를린
연방주 베를린
주소/ Schichauweg 58, 12307 Berlin
연락처 Telefon: 030 8903-0

개요

- 연방환경청 (UBA)**
- 독일연방환경청 (UBA)은 연방행정기관으로서 주로 환경관련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여 환경부의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관이다. (독일은 이원적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부Ministry 와 청Amt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
 - 독일연방환경청UBA의 본부는 데싸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세 개의 지부를 두고 있어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베를린 지부/ 마리엔펠데**
- 독일 최초의 진정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 독일연방환경청(UBA) 베를린 지부 건물
 - 수자원보호 연구에 관한 부서 입주
 - 31명의 전문직

“The House 2019”

- EU에서 2010년 훨씬 강화된 "에너지 총효율에 관한 지침 (2010/31/EC)" 개정안을 발령 → 2019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에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적용. 이를 간단하게 House 2019로 부름.
- UBA는 모델케이스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로에너지"건물 신축 결정.
- 2019년 기준보다 훨씬 앞당겨 2013년



독일연방환경청 베를린 마리엔펠데에 있는 지부, 수자원보호관련 연구업무



하천수와 호수 시뮬레이션 홀



하천수와 호수 시뮬레이션 필드



독일연방환경청의 제로에너지하우스 “The house 2019”

9월에 완공.

- "Haus 2019"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백퍼센트 자가 생산하여 조달한다는 개념
- 일 년간 모니터링 후 2014년 9월에 결과 도출 예정
- 건축외장자재는 유리를 제외하곤 모두 순목 사용
- 단열최대화 (공기전도지수 0.33) 하는 대신 이에 동반하는 통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통풍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고려.
- 지하수를 채취하여 실험, 점검하는 장소이므로 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를 동시에 냉난방에 사용.
- 컴퓨터를 이용한 중앙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전자제품의 사용량이 자동적으로 최적화됨.
- 백퍼센트 장애없는 건축으로 '인간자원을 최대한 보호함.



면담

연방환경청 건축기술 및 대내외 협력부
 Rererat Z5 Bau und Technik, Innerer
 Dienst
 Herr **Tilo Herzig** (+49 152 26722224)

베를린 세계의 정원 Gärten der Welt

답사지명 여가휴양공원 세계의 정원
도시 베를린
연방주 베를린
공원유형 공공녹지 및 휴양공원
위치 베를린 남동부의 마찬구 내에 위치

면적 (ha) 21 ha

개요

- 1987년 5월 9일 오픈
- 베를린 750주년을 기념하여 동베를린에서 정원박람회 개최
- 초기에는 마찬휴양공원으로 불림
- 2000년: 중국정원 오픈
- 2003년: 일본정원 오픈
- 2005년: 오리엔트 정원 오픈
- 2006년: 서울정원 오픈
- 2007년: 미로정원 오픈
- 2008년: 이태리 르네상스정원 오픈
- 2008년: 칼 피르스터 숙근초원 복원 및 오픈
- 2009년: 기독교정원 오픈

- 2017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결정
- 현재 공사준비관계로 일부 관람 불가 (이태리정원 등)

**국제정원박람회
2017**





베를린 마찬 휴양공원

- 프레시안 가이드 발표 원고 중에서 -

동서베를린이 하나가 된지 이십 년이 지났다. 통일계약을 맺을 때 동베를린이 서베를린에게 떠넘겨 준 것 중에는 공원도 하나 있었다. 베를린 동쪽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자리 잡은 이 공원의 본래 이름은 마찬휴양공원이다. 마찬은 공원이 있는 동네의 이름을 딴것이라 별 뜻은 없다. 그런데 이 공원에 몇 해 전에 별명이 생기며 뜻도 생겼다. "세계의 정원들"이 그것이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 지금 마찬휴양공원에 가면 세계 각국의 정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통 정원도 있다. 중국, 일본정원, 이탈리아 정원, 발리정원, 오리엔트 정원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잡히는 대로 다른 문화권의 정원들로 계속 채울 것이다. 전체 청사진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세계정원을 보기위해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세계정원을 짓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십년 전, 서베를린에서 마찬공원을 떠맡았을 당시, 이 공원은 참으로 쓸렁한 곳이었다. 비록 장벽이 무너지기 두 해전인 1987년에 여기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었다고는 하나 그 때 동독은 이미 붕괴되기 직전의 혼란스런 상태였고, 재정은 바닥나 있었다. 정원을 워낙 좋아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억지로 꾸린 정원 박람회이고 보니 명랑한 꽃의 축제라기보다는 마치 쓸쓸한 작별인사 같은 거였다.

1994년 북경과 베를린이 자매도시가 된다. 이것이 마찬공원의 팔자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때 양 도시는 베를린에 중국정원을 하나 만들자고 약속한다.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빈 자리가 행한 마찬공원이 적소로 선정된 거였다. 다만 디즈니랜드 식의 흥내만 낸 조잡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중국 수천 년 정원의 역사와 혼이 묻어나는 깊은 것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

서 북경대학의 전통조원학과에게 설계를 의뢰하게 된다. 정원의 이름을 득월원 得月園이라고 지었다. 1997년 설계가 완성되고 첫 삽을 뜨게 된다. 약 9,000평의 방대한 정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경에서 열여덟 명의 정원사와 두 명의 건축가가 직접 베를린에 가서 공사를 담당했다. 6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베를린시와 북경시가 각각 일부를 충당했고, 유럽연합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주었으며, 폴크스바겐 상해지사, 루프트한자, 에어베이징, 에어차이나 등의 기업에서도 지원해 주었다. 그 밖에 독일의 조경업체들이 식물과 자재를 제공하는 등 여럿의 힘을 모아 완성되었다.

한국 기업이 정원 만드는데 보조금을 대주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정원은 도저히 생색이 나지 않는데다가 당장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직 정원만드는 일이 문화 사업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정원은 대박이었다. 이 경험에 힘입어 다른 나라의 정원들, 특히 유럽에서 보기 힘든 동양정원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방향이 정해진다. 다음에 들어선 것이 일본정원이다. 일본의 정원양식 중에는 선禪정원이라는 독특한 것이 있다.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래와 암석을 주소재로 삼는다. 모래위에 암석을 배치하고 주변에 극히 절제된 방식으로 식물을 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을 전혀 심지 않고 순수하게 모래와 돌로만 만들기도 한다. 모래에 갈고리로 조심스럽게 줄무늬를 만드는데 매일 모래를 다듬어야 한다. 일종의 수련인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이 선정원을 아주 신비롭게 여기고 좋아한다.

일본의 정원 작가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을 골라 일을 맡겼다. 타마예술대학 조경학과의 마수노 교수인데 그는 승려이기도 하다. 그 역시 일본의 기술자들을 대동하고 베를린에 가서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첫 삽을 뜰 때부터 마지막에 모래에 문양을 내는 작업까지 순수하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는 장인정신을 보여주어 독일 담당자들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일본정원은 작은 편이다. 칠백 평 정도이다. 중국정원을 뺀 다른 정원들은 다 그 만그만한 크기이다. 일본정원의 공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발리정원을 추진하였다. 발리는 더운 나라이고 독일은 추운나라이니 발리정원은 실내로 들어갔다. 걸음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온실처럼 생겼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짙은 녹색의 열대식물들이 더운 향기를 뿜어내고 초가를 이은 아담한 집과 낮은 담이 아늑하다. 발리의 주택정원을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역시 발리에서 온 기술자들이 만들었는데 비용은 베를린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다. 왜 하필 발리정원이었을까? 더운 나라의 정원을 만든 것은 겨울에도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할 목적이었다. 자카르타와 베를린 역시 자매도시이다. 서로 의논한 끝에 발 리가 모델로 선정되었다. 될 수 있으면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자 한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베를린을 방문할 때 베를린 시장과 의논되었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영원히 담아두면서 박물관이 아닌 살아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할 때, 정원만큼 적합한 것은 없다. 그래서 베를린 시장은 다른 도시의 시장을 만날 때마다 정원을 화두로 꺼내는 모양이다. 그만큼 유럽에서는 정원이 중요한 문화요소에 속한다.

2006년에 “서울정원”이 문을 연다. 설계는 한국의 정원 작가 오웅성과 윤영조가 맡았다. 당당하게 현상공모에서 당선한 작품이다. 경주에 있는 이연적 선생의 사랑채였던 독락당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서울정원이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생색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비용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였었다. 다른 국가의 정원은 베를린에서 조성비용을 책임지거나 스폰서를 찾고, 유럽연합의 보조를 받은 반면 유독 서울정원의 조성비만 서울에서 전담한 것은 일 자체를 우리 쪽에서 자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베를린에서는 한국정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건 한국의 정원문화가 그만큼 서방에 알려져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막상 한국정원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몹시 반가워했다. 그리고 신기해했다. 한국정원이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독자적인 멋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의 조경현실이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현장을 지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를 맡았던 한국의 시공사도 외로웠고 설계자들도 먼발치에서 안타까워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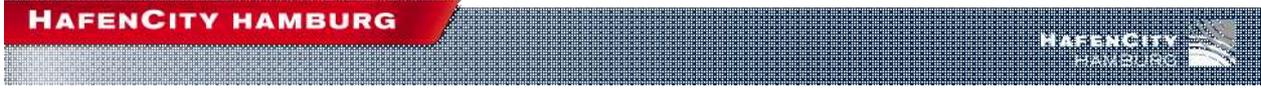
서울정원은 소슬대문으로 들어가 넉넉한 마당을 여러 개 거치면 사랑채가 나오고 여기서 뒷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오면 널바위가 있는 개울과 만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중국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섬세하지도 않으며 소박하지만 선비가 글을 읽다가 문득 개울로 나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즈넉함을 담고 있다. 아직 열 살도 되지 않아 정원으로 자리 잡히려면 멀었지만 마음을 푸근히 하고 기다려 볼 일이다.

곧 이어 이슬람정원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다가 이슬람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이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까닭에 오리엔트 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알제리 출신의 카멜이란 작가의 손에 의해 여물어졌다. 길고 좁은 수로에서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를 중앙에 두고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한 전형적인 이슬람양식을 따르는데 그 영롱한 아름다움이 보석 같다.

이렇게 동양의 정원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유럽 정원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별장을 재현해 놓은 이탈리아 정원과, 영국의 미로, 그리고 물론 독일 정원이다. 곧 프랑스 정원과 기독교 정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다. 가장 독일적인 정원은 역시 자연스러움이다. 수목을 배경으로 하여 화려한 꽃을 흐드러지게 심는 것이 특징이다. 생각하기에 독일 정원은 병정처럼 뾰뾰하고 기계처럼 딱딱할 것 같다. 그러나 정원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독일 사람들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정말 모를 일이다.

2010, 고정희

함부르크 하펜시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현장



기관/답사 명 함부르크 하펜시티 신도시 :
지속가능성 전시관 방문 및 가이드 투어

도시 함부르크

연방주 함부르크

**주소/
연락처** Hafencity Hamburg GmbH, Osakaallee 9,
D-20457 Hamburg
Tel+49-(0)40-374726-60
<http://www.hafencity.com/anfahrtsbeschreibung>



개요

하펜시티
(Hafencity)

- 위치: 함부르크의 구 항구 및 산업부지의 도시재생 및 신축구역
- 규모: 157ha (그 중 육지 127ha)
- 혼합용도지: 주거, 오피스, 상가, 호텔, 식당, 대학, 기타 여가시설 및 녹지, 정원과 공원 등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신도시 구역 개발
- 구역의 본래 성격에 따라 총 10개의 quarter로 나뉨
- 총 연면적 2백 32만 평방미터 재생 및 신축
- 주택 6천 가구, 일자리 4천 5백
- 항구변 산책로 10.5km,
- 공원녹지, 광장, 산책로 면적: 약 28ha
- 2014년 현재 약 56 % 완료



엘베강가의 항구도시

- 연혁
- 1997: 프로젝트 발족
 - 1999: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Kees Christiaanse / ASTOC 당선)
 - 2000: 시설공사 착공
 - 2003: 건축공사 착공
 - 2007: 지하철 공사 착공
 - 2009: 제1구역 Am Sandtorkai 준공
 - 2012: 로제파크 (Lohse Park) 착공
 - 2013: 그라스부르크 파크Grasbrookpark 오픈
 - 2014: 하펜시티 대학 개교
 - 2016: 엘프 필하모니 완공예정
 - 2025: 하펜시티 전구간 완공 예정



구도시와 신도시의 조화



Sandtorkai Quarter

지속가능성

- 토지이용 효율 상승
- 이동거리 최소화, 걷기좋은 거리
- 지속가능한 교통 컨셉
- 지속가능한 모델 단지 바켄하펜 조성 "Baakenhafen"
- 공해저감형 난방체계
- 자원절약형 건축
- 친환경성 증명제 Gold/Silber 5개 카테고리
 - 건축내 화석연료 저감방안
 - 공공자원 절약 방안 (예: 물절약 화장실)
 - 친환경 건축자재
 -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함 보장
 - 지속가능한 건물 관리와 운영
 - 친환경적 교량건설기술 도입



지속가능한 모델 단지 바켄하펜 조성 부지 "Baakenhafen"



바켄하펜 "Baakenhafen" 조감도

지속가능성 전시관 "오사카9"

- 하펜시티에 적용된 지속가능성 컨셉을 종합하여 전시
- 핵심 테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혼합도시 구조/에너지절약 동선체계/에너지절약방안 등
- 하펜시티 가이드 투어의 출발점



지속가능 전시관

가이드 투어

테마: 녹색하안 Grüne Landgang (2시간)
 하펜시티는 총 7 개의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녹색 하안 **Grüne Landgang** 투어는 하펜시티의 과거, 현재 미래와 건설현황, 완공된 도시구간 등을 답사함.

가이드 담당:

Herr B.Sc. Thorsten Gödtel



"오사카9"

VOLKSPARK POTSDAM 포츠담 시민공원

기관/답사 명 포츠담 시민공원 Volkspark Potsdam

도시 포츠담

연방주 브란덴부르크

**주소/
연락처** Volkspark Potsdam
Georg-Hermann-Allee 101
14469 Potsdam
<http://www.volkspark-potsdam.de/content/view/12/17/>



개요

- 2001년 연방정원박람회 개최 후 포츠담 시민공원이 됨.
- 약 60ha
- 주변 본슈테터펠트 신도시개발에 원동력과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도시 중앙에 60ha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연방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본슈테터펠트의 신도시개발의 원동력이 되게 함.
- 정원박람회와 신도시개발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전통 마련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신도시

공원의 성격

- 포츠담은 전통적으로 정원의 고장
- 역사적인 정원경관에 대비하여 새로운 공원개념을 탄생시키려 노력
- 스포츠, 놀이시설에 중점을 두고 역동적, 활동적 공간으로 사후 방향설정



2001 정원박람회 당시 전경

공간적 구조

운동과
놀이공간



- ① 디스크골프장
- ② 암벽타기놀이장
- ③ 대형놀이터
- ④ 동네축구장
- ⑤ 달리기, 스케이트
- ⑥ 스케이트보드장
- ⑦ 축구, 농구장
- ⑧ 물놀이터
- ⑨ 대형 미끄럼틀, 암벽타기
- ⑩ 트램펄린
- ⑪ 스트리트볼
- ⑫ 체스판
- ⑬ 비치배구장
- ⑭ 미니골프
- ⑮ 비치배구장 funfor4



정원공간



- ① 실용정원
- ② 키친가든
- ③ 자원정원
- ④ 유실수초원
- ⑤ 대표 속근초 전시원
- ⑥ 피라미드정원
- ⑦ 아이리스골짜기
- ⑧ 장미정원
- ⑨ 소용돌이
- ⑩ 수목섬
- ⑪ 로도덴드론숲
- ⑫ 관목원
- ⑬ 에른스트 파겔의 벼과식물원
- ⑭ 달리아전시장소 (늦여름-가을)



환경예술품



- K1 : "울타리"
(Igor Sacharow-Ross 작)
- K2 : "K"
(Fritz Balthaus 작)
- K3 : "농구장"
(Inges Idee 작)
- K4 : "탑"
(Anette Werhmann 작)



지속가능한
공원운영상
2014

독일연방정원박람회재단이 격년으로 수상하는 "지속가능한 공원운영"상으로서 구 정원박람회장의 사후 발전 방향을 평가하여 내리는 상. 포츠담 시민공원의 수상 근거:

- 주변 생태신도시의 완성으로 증가하는 이용자수와 이용자 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 우수한 정원과 공원 관리상태

- 모든 세대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원
-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공원 모습을 지키고 기본 컨셉에 충실.
- 다양한 식물 테마를 적용하여 변화있는 경관 연출
- 연간 15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역에 해당하는 이익 창출
-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제로 이용도를 대폭 증가시킴



Freunde der Freundschaftsinsel e.V.

포츠담 우정섬 공원

기관/답사 명 포츠담 우정섬 공원 Freundschaftsinsel
도시 Potsdam
연방주 브란덴부르크
주소/연락처 Freundschaftsinsel
 14467 Potsdam
<http://www.freundschaftsinsel-potsdam.de/>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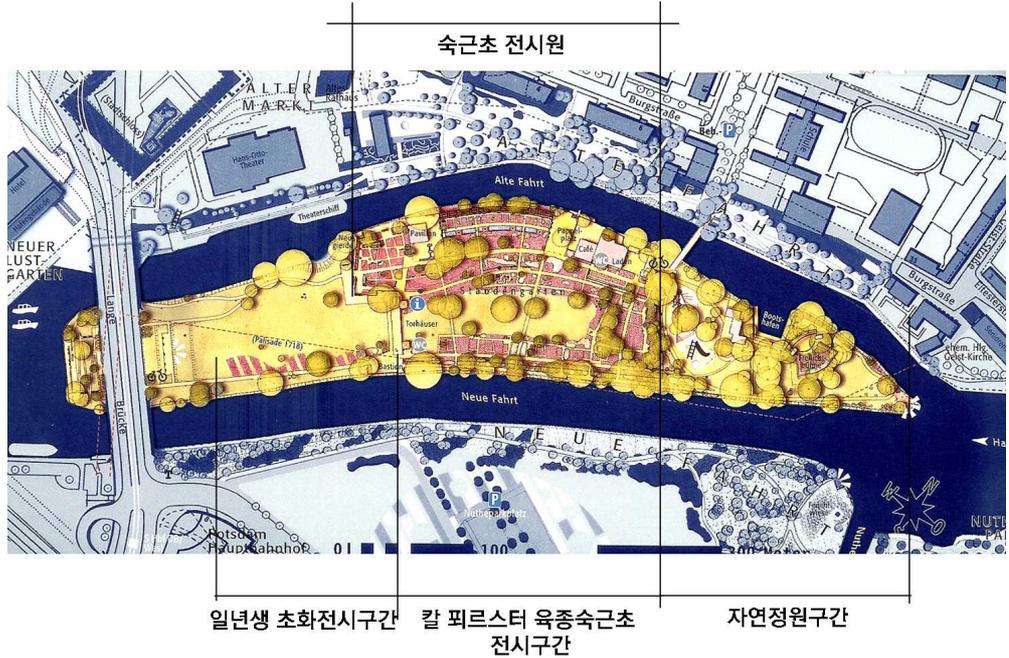
위치/규모/역사

- 포츠담의 누테강과 노이에파르트 운하사이의 형성된 반 인공섬으로 1824/25년 장교 (長橋 Lange Brücke)가 건설되며 섬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 당시 섬은 개인소유의 토지였으며 소유주 가족이 정원을 꾸미고 유원지 레스토랑을 설립, 포츠담 시민들의 유원지가 되었음.
- 1937년 칼 피르스터가 포츠담 시를 설득하여 토지를 구입, 숙근초 전시원으로 조성
- 2차 대전 시 심하게 훼손
- 1966년 이후 칼 피르스터의 제자 페터 알트만 등에 의해 원상태로 복원됨.
- 1967년 복원과 함께 공원의 성격을 확장하여 순수한 전시정원을 벗어나 다목적 휴양공원으로 거듭남.
- 1974~ 79 : 식재 재복원
- 2001년 포츠담 연방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재단장.
- 부단한 관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적용으로 현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성장.
- 약 6.5ha (690m x 140m), 전 면적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운영
- 포츠담시 공원시설과
 - 우정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공원 총 책임자 : Herr Jörg Nätke

공원의 구조
및 구성요소



- 정원
- 칼 피르스터 숙근초 전시원
 - 숙근초 전시원 (아이리스원, 암석정원 등)
 - 작약원
 - 자연정원

조형물 20점

기타 시설

- 레스토랑 "Daily Coffee"



- 보트선착장



- 파비용 (미술전시장)



- 야외무대 (500석)



